세미나자료 2023-08

유보통합 교원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보육 전문가 포럼

일시 | 2023. 7. 24. (월) 13:30 - 17:00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강의동(사향문화관)
주최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주관 |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교원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보육 전문가 포럼

일 시 | 2023. 7. 24. (월) 13:30~17:00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강의동(사향문화관)
주 최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주 관 | 아이행복연구자문단, 육아정책연구소

시간	내용
13:30~13:50	**| 등록 |**
13:50~14:00	**	인사말씀	**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이상진 단장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14:00~15:00	**| 발표 1 |** <주제 1> 영유아 교사·원장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 손승희 교수	4년제보육교사양성대학교수 대표/한국아동학회 ▸ 손혜숙 교수	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 이승하 교수	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주제 2>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 방안 ▸ 김대욱 교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신나리 교수	한국보육지원학회
15:00~15:10	**| 휴식 |**
15:10~16:10	**| 발표 2 |** <학회발표> ▸ 황성원 교수	한국보육학회 ▸ 이병래 교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정효정 교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임혜성 교수	한국유아교육학회 ▸ 조운주 교수	한국육아지원학회
16:10~17:00	**| 토의 및 폐회 |**

CONTENTS

인사말씀

- **박상희** ㅣ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이상진** ㅣ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단장

발표 1

ㅣ 주제 1 ㅣ **영유아 교사·원장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 ▸ **손승희** 교수 ㅣ 4년제보육교사양성대학교수 대표/한국아동학회 ····· 5
- ▸ **손혜숙** 교수 ㅣ 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 13
- ▸ **이승하** 교수 ㅣ 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 18

ㅣ 주제 2 ㅣ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 방안**

- ▸ **김대욱** 교수 ㅣ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29
- ▸ **신나리** 교수 ㅣ 한국보육지원학회 ····· 36

발표 2

ㅣ **학회발표** ㅣ

- ▸ **황성원** 교수 ㅣ 한국보육학회 ····· 45
- ▸ **이병래** 교수 ㅣ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51
- ▸ **정효정** 교수 ㅣ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52
- ▸ **임혜성** 교수 ㅣ 한국유아교육학회 ····· 57
- ▸ **조운주** 교수 ㅣ 한국육아지원학회 ····· 6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입니다.

유보통합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보육 전문가 포럼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 출범에 발맞춰 유보통합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학부모의 정책적 지지, 그리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전문가 포럼이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포럼에 참여해 주신 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여러분과, 각 협의회 및 학회를 대표하여 발표를 맡아주신 열 분의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부 교원·교육과정지원과 관계자분들과 우리 연구소 연구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의 논의가 올바른 유보통합의 방향을 정립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 도출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추진단장 이상진입니다.

아이행복 연구자문단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유보통합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보육 전문가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에 참여해 주신 학회, 양성기관 협의회 등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 이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을 목표로,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교육부·복지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식에서 4개 기관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①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고, ②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③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시기부터 수준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보통합은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추진단에서는 그동안 간담회, 기관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논의되길 바라며, 특히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소중한 제안은 향후 유보통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단장 **이상진**

발표 1

주제 1 **영유아 교사·원장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 손승희 교수 | 4년제보육교사양성대학교수 대표/ 한국아동학회
- 손혜숙 교수 | 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 이승하 교수 | 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주제 2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 방안**

- 김대욱 교수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신나리 교수 | 한국보육지원학회

주제 1

영유아 교사·원장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발표자

- 손승희 교수 | 4년제보육교사양성대학교수 대표/한국아동학회
- 손혜숙 교수 | 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 이승하 교수 | 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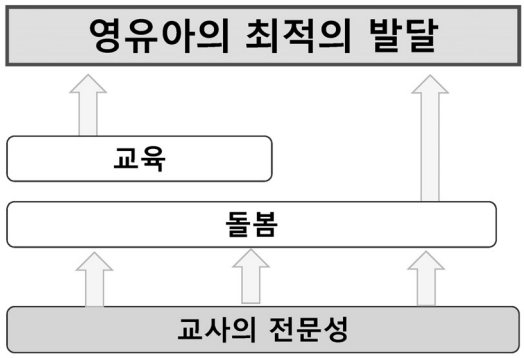
유보통합 교사 자격 – 양성 체계 개편 방안

손승희 교수 ㅣ 4년제보육교사양성대학교수 대표/한국아동학회

유보통합 교사 자격 - 양성 체계 개편 방안

한국아동학회

들어가기



예비 영유아교사(가칭) 전문성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함

1. 학사 이상 이수자에게 자격부여와 교육 연한에 따른 위계적 관리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부여를 위한 적정 수업 연한 ➡ **4년**

구분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통합 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전체	-	4.5	25.1	68.3	2.1	1.7	15.3	30.0	52.3	0.7	0.7	5.9	22.3	69.7	1.4
자격별 양성기관															
유	-	1.3	18.8	77.9	1.9	0.6	12.3	31.8	53.9	1.3	0.0	1.3	17.5	80.5	0.6
보	-	8.3	32.3	57.1	2.3	3.0	18.8	27.8	50.4	0.0	1.5	11.3	27.8	57.1	2.3
χ^2 (df)			17.4(3)**					6.5(4)					24.6(4)***		
자격 및 수업연한별 양성기관															
4년유교	-	2.7	2.7	93.2	1.4	0.0	12.2	21.6	64.9	1.4	0.0	1.4	2.7	95.9	0.0
전문유교	-	0.0	33.8	63.8	2.5	1.3	12.5	41.3	43.8	1.3	0.0	1.3	31.3	66.3	1.3
4년보육	-	6.3	11.1	79.4	3.2	0.0	9.5	12.7	77.8	0.0	0.0	1.6	11.1	84.1	3.2
전문보육	-	8.3	56.3	33.3	2.1	0.0	20.8	52.1	27.1	0.0	0.0	12.5	50.0	35.4	2.1
교육원	-	13.6	40.9	45.5	0.0	18.2	40.9	18.2	22.7	0.0	9.1	36.4	27.3	27.3	0.0
χ^2 (df)			72.5(12)***					92.8(16)***					131.5(16)***		

** $p < .01$, *** $p < .001$

출처: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67.
*** $p < .001$.

유아교육과 보육전문가 400명, 교원 1,500명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영유아교사 통합시 4년제 학사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김은영·김길숙·이연주, 2014).

1. 학사 이상 이수자에게 자격부여와 교육 연한에 따른 위계적 관리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부여를 위한 적정 수업연한 ➡ **4년**

4년제 학사학위 — 기준

2~3년제 학사 ➡ 수업 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방안

학사학위 — 기준

보육교사 3급
(전체 보육교사의 9.2%) ➡ 영유아교사 자격의 위계적 차등 관리

2. 예비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양성 기준

(현)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구분		학점수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 과목	보육교사 양성과정 과목	학점수	구분	
			양성과정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보육교사(인성론) 이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교사 인성 영역
전공 영역	기본 이수 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 및 실습 부모교육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학습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필수 교과목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2. 예비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양성 기준

(현)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구분		학점수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 과목	보육교사 양성과정 과목	학점수	구분	
			양성과정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보육교사(인성론) 이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교사 인성 영역
전공 영역	선택 과목		기본 이수과목의 잔여학점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리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선택 교과목	
	소계	50학점 이상			14과목 (45학점 이상)		

2. 예비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양성 기준

(현)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구분		학점수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 과목	보육교사 양성과정 과목	학점수	구분	
			양성과정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보육교사(인성론) 이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교사인성 영역
	기본 이수 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학습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9과목 (27학점)	필수 교과목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선택 과목		기본 이수과목의 잔여학점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리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선택 교과목	
	소계	50학점 이상			14과목 (45학점 이상)		

유아 vs 영유아 / 아동

부모 / 가족/ 지역사회
사회환경
장애아 / 특수아동

2. 예비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양성 기준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전공영역 교과목

1 영아/ 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으로 운영

2 영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부모, 지역사회, 사회환경 등)에 대한 교과목 운영

생태학적 접근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2. 예비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양성 기준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전공영역 교과목

3 초등 및 중고등 교과목과 다른 접근이 필요함

4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 교과목으로 재구성

- 아동음악
- 아동미술
- 유아사회교육
- 유아수학교육
- .
- .
- .
- .

→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지원하는 전문 역량으로 재구성**

2. 예비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양성 기준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교직과목

1 영유아교사에게 적절한 교직과목으로 운영

2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기본방향인 놀이중심, 영유아 중심 기조에 적합한 교직과목 운영

2. 예비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양성 기준

(현)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구분		학점수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 과목	보육교사 양성과정 과목	학점수	구분	
교직 영역	교직 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해당없음			
	교직 소양	4학점 이상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해당없음			
	교육 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필수 교과목	보육 실무 영역
소계		22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전체		**72학점 이상**			**17과목 (51학점 이상)**		

사범대학이나 교육학과가 없는 대학의 경우 교직과목 수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내용의 교직 교과목 운영
- 학과에서 개설 가능한 수준의 교직 교과목 운영

2. 예비 영유아 교사 자격 양성 기준

예비 영유아교사 자격 과정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영유아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관련학과 선정 (포괄적으로)

- **새로운 영유아교사 역량 교과목 구성**
- **새로운 영유아발달 및 교육 교과목 구성**

3. 예비 영유아 교사 자격 검증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인증제도 도입

또는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운영

추후에 다루어야 할 논제들.....

- 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유아교육과)를 통한 교사 자격 취득은 교육대학원 방침을 토대로 논의되어야 함
- 기존의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영유아교사(가칭) 전문성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연수 또는 보수교육 방안
- 원격대학을 통한 영유아교사 자격 취득 제도 수정 및 폐지 여부
- 영유아교사 자격 체계 통일(예: 2급-1급-원감-원장)
- 전문역량이 적합한 처우와 복지 등

감사합니다.

유보통합 교사자격·양성체제 개편 방안

손혜숙 교수 | 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110여년 동안의 유아교육과 60여년 간의 보육은 그동안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와 기관의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며 아이들을 잘 책임져 왔다. 이제 국가가 저출산 문제 등으로 교육부로 교육과 보육을 한 보자기에 잘 싸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니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네 과거 역사적 맥락과 미래를 고려할 때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다가온다. 2023년 1월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유보통합 정책 개념을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 유보통합의 정책은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획일적인 통합도 아니다(이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도 처음부터 언급한 내용이다). 아이들이 이용기관에 따른 차별없어 행복하게 발달단계에 따라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 원장, 교사, 대학 등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발달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언급은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던 시절에 선진국들의 유보통합이 동기화되어 이원화에 따른 예산의 중첩, 행재정의 비효율화, 학부모들의 혼란 등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기반에서 시작되었다. 28년 동안 유보통합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사자격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식비라든지, 교육비 지원 등은 그나마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예민하고 뜨거운 감자로 남는 것은 교사체계의 과제이다. 이제 환상 같은 이상적 언급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성과 미래성을 고려할 때 실제 현실로 가능한 유보통합 교사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유보통합은 교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한유협의 교사자격-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교사체계 개편 방안

교육부는 교사체계에 있어 무엇보다도 변혁적 기반을 최소화하고 현 체제 안에서 가능한 안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믹서기에 갈아 넣어 그 형태와 정체성을 알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보자기 안에 잘 싸매야 하는 것이다. 유보통합의 부처는 이미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이 배출되어 있고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 통합되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부로 부처일원화를 한다고 해서 교사자격을 모두 똑같이 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똑같게 하는 것이 유보통합도 아니다.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에 맞게 보육이 그 기본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사체계에 대한 무리한 통합 주장은 오히려 경직성과 질 저하를 가져오거나 역차별성과 불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은 교사체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사체계에 따라 관련 관리, 재정, 행정, 거버넌스, 교육과정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체계에 따른 전체적인 밑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한다.

1. 교사자격 개편 방안의 근거

□ 영유아는 발달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과 능력 차원에서 영아와 유아는 그 차이가 매우 현격하게 크다. 영아에 대한 교육은 발달적 특징에 따라 안전, 건강, 영양, 보건 등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곧 교육적 발달이다. 이러한 교육적 발달에 있어서는 영아에 대한 보육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유아는 발달적으로 사고(thinking) 과정이 가능한 시기로 교육프로그램(educational program)의 참여가 가능한 시기이다. 그래서 교사(teacher)는 티칭(teaching)의 활동이 수반된다. 보육과는 다른 접근인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유아교사를 양성할 때 교직교과목이 있었던 것이고, 보육교사에게는 교직교과목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아 시기의 보육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에서도 영유아교육을 ISCED 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범주를 01(영아발달)과 02(유아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0~2세 영아시기에는 교육프로그램(education program)에 참여하지 않는 시기로 운동능력, 협응능력 등 교육적 발달에 보건, 영양 및 건강, 안정 등의 돌봄이 중요한 시기로 구분하고 있고, 3~5세의 유아시기는 사고과정을 통한 언어발달, 사회적 기술, 놀이를 기반으로 한 탐색 학습의 시기로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초등교육 이전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수준	범주		내용
ISCED 0	01 educational development & care	영아발달	보건. 영양 및 건강, 안전
	02 Pre-primary education	유아교육	교육프로그램 참여
ISCED 1	10 Primary education	초등교육	(생략)

□ 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영아기 발달 특성과 유아기 발달 특성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여 교사자격도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0~5세 교육부로 통합된 국가들(스웨덴. 핀란드. 뉴질랜

드, 영국 등)도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영아담당 자격과 유아담당 자격이 구분되어 있다. 통합 모델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일본의 인정어린이원 같은 경우도 한 건물 내에 0~5세가 있지만 실제 공간은 0~2세와 3~5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사 및 교육과정도 분리되어 있다. 영아학급과 유아학급을 담당하는 인력뿐 아니라 중간 관리자 원감도 각각 배치되어 있고 원장이 총괄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계속 이원화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OECD국가 중 84.4%(27개국)가 영유아 교사자격이 분리되어 있다. 이처럼 영아기와 유아기 발달적 특성에 따라 보육과 교육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알맞는 전문화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 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앞으로 학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교사 수급도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교원 자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원 자격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최근 25년동안 교원양성대학 평가 및 역량진단을 철저하게 실시해 왔고, 교원 감축을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평가의 결과는 3주기(2010~2014)에 3.679명, 4주기(2015~2017)에 6,147명, 5주기(2018~2021)에 4,453명의 교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다. 이렇게 교원을 감축해 온 교육부가 현재 유치원교사 5만여명보다 6배 많은 32만여명의 보육교사에게 교직교과목 이수 정도의 보수교육 등으로 교원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는 오히려 교원에 대한 역차별적인 행태가 된다.

2. 교사자격 개편 방안 관련 전제 요소

□ 전문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는 4년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미 전문대학(교)의 80%의 유아교육(학)과가 4학년 과정이라고 불리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1 학제로 교육과정의 질적인 누수가 있기보다는 4년제로 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질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치원에도 0~2세 영아반 학급을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시설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영유아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학부모들에게 편의적 서비스(시설이 없어 영유아를 먼 곳으로 보내야 한다거나 형제자매를 각각 다른 기관에 보내야 하는 등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유치원에서도 0~2세 영아반을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 일원화 체제가 이루어지면 0-5세 영유아의 정확한 수치 및 시설 수치 등 여러 통계적 분석이 통합적으로 가능해져 전체 및 지역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바람직할 것이다.

3. 교사자격-양성체계 개편 방안

현 자격	통합 자격(가칭)	교육부 직제	양성학과
보육교사	영아전담사	신설	보육 및 아동 관련 학과
유치원교사	유아교사	유지·변경	유아교육과(교원양성대학)

□ 현 체제에서의 큰 변화 없이 교육과 보육이 통합할 수 있다면 혼란을 피하며 가장 효율적인 통합이 될 것이다. 유보통합이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근본 방향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 학부모, 원장, 교사, 대학 등 어느 관계자나 단체·기관도 현재 상황보다 악화되거나 피해를 입히는 상황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보육교사를 영아전담사로 흡수하여(관련 직제 신설 필요) 0~5세 대한 보육과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영유아지원관(가칭)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영아전담국과 유아교육국을 두어 상호관련성 및 전문성으로 질적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양성은 현 그대로 교원양성대학 유아교육(학)과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보육 및 아동 관련 학과에서는 영아전담사를 학과제 중심으로 양성한다. 유아통합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치원 교원을 가장 큰 비중으로 양성하고 배출해 온 전문대학(교)나 지방대 유아교육(학)과를 쇠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보통합은 현재의 교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 교사체계는 앞으로 양성될 교사뿐 아니라 기존 배출 교사도 함께 고려하곤 하는데, 보육교사가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의 교사자격 기준에 맞는 편입 또는 입학으로 교원자격을 제대로 갖추게 해야 한다. 이때 학점제(방통대 등)가 아닌 학과제로 교원자격을 이수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교사체계는 질 높은 유아교사 체계로 유지 및 구축되어야 한다.

□ 교원자격을 갖춘 유아교사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3-5세 유아반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0~2세 영아반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 즉, 유아 교원에게는 현 체제처럼 유아교사 및 영아전담사 자격증을 모두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아전담사는 0-2세반 담당 및 3~5세반 보조교사 또는 방과후 교사, 그리고 초등 돌봄교사 등 넓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영아전담사는 0~2세의 보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수행을 하는 인력으로, 그에 합당한 처우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 0~2세의 발달적 특성은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아닌 보육과 돌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에 교원자격증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현재도 보육교사는 교원자격이 아님에도 영아에

대한 보육을 잘 수행해 왔다. 0~5세 통합교사 배출 시 우려되는 0~2세 영아반 담당 기피 현상도 없이 처음부터 중요한 영아기를 담당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교사체계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가 중심이 되어야지 교원자격 취득여부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Ⅲ. 나가며

교육부는 발표한 유보통합 로드맵대로 실현하고자 매우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로드맵은 너무나 성급한 면이 있다. 유보통합은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Alignment 기한부터 충분히 두어 공공성의 학교 기반 위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2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유보통합은 앞으로도 28년이 필요할지, 18년이 필요할지 모른다. 장기간의 심사숙고에 따른 단계적 절차로 혼란을 피하면서도 가장 현실 가능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한유협은 교육부 및 유보통합 추진단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는 바이다.

□ 유보통합의 밑그림은 교사체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는 교사체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전체적인 유보통합 방향 및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유아교육계, 보육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정도의 교사체계부터라도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선점된 연구가 아니라, 객관적인 연구 수행이 이루어져 철저한 분석과 현실 검토를 통해 반영 가능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교사체계 모델안에 따른 각각의 예산 조달, 재정의 집행방식, 관리체계, 법률, 전달체계, 거버넌스, 시설, 교육과정 등등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전면도 밑그림이 먼저 제시되도록 연구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연구모델	교육부 자격체계 조건	비고
1안	0~2세 영아전담사(비교원), 3~5세 유아교사(교원)	각 모델안에 따른 예산 조달, 재정 집행방식, 관리체계, 법률, 전달체계, 거버너스, 시설, 교육과정 등 관련 전면도 밑그림이 제시되는 연구가 전제되어야 함.
2안	0~2세 영아전담교사(교원), 3~5세 유아교사(교원)	
3안	0~5세 영유아교사(교원)	

□ 유보통합 추진과정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연구자문단의 협의회 내용은 교육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또한 각 관계자 및 기관·단체의 형식적 소통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 되도록 열려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정책적 방향과 진행의 내용이 공개되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자격, 양성, 처우 개선 방안

이승하 교수 ㅣ 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는 2023년 7월 유보통합에 대한 회원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회원교는 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에 교육부에 현재 유보통합의 쟁점을 요구하여 쟁점자료를 전달받은 후 이를 중심으로, 크게 3가지 쟁점, '자격체제 개편', '양성체제 개편', '현직교사의 자격전환' 으로 나누어 의견을 물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달받은 분야에 따라 회원교의 주요의견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유보통합의 정책의 개념
'0-5세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

회원교의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4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다.

1. 유보통합의 여러 차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현 정부 임기기간동안 2022-2027 이 모든 차원을 다 한꺼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유보통합 여러 토론회에서 공감을 샀던 내용은 단계적 통합이었다. 이덕난 선생님의 2022년 9월 30일자 토론자료와 같이 1차적으로 유보통합 소관부처 일원화를 하고(1부처 2사무 방식) 2차적으로 행정적 통합, 그 다음으로 재정적 통합을 한 후 다른 세부적인 차원의 통합과제는 논하는 것이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설립 및 운영자의 권익, 교・직원 등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현행 수준 유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은 유보통합 소관부처 이관 이후에도 그대로 가는 것이라는 방향에 공감하여 통합에 임한 것이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반적인 영유아 수요 파악 및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요 파악 등 데이터를 하나의 부처에서 교육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어떠한 유보통합의 원칙 아래 통합의 여러 차원들을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2. 유치원인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은 성격과 목적 및 강조점이 다른 이질적인 체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통합논의에서 두 기관의 통합 후 **기관의 성격을 먼저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기본과정 운영시간, 돌봄 및 방과후과정 시간 등 교사의 자격과 양성 및 처우에 직결되는 내용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자격, 양성 체제 및 처우에 대해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3. 현재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고 어린이집 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교원화한다면 유치원 교사 대비 5~6배 많은 수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재원 마련**이 된 것인가? 우선 재원 마련을 한 후에 자격에 대해 논해야 할 것이다.

4. 전체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통합,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교원자격 취득을 전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 하면 어려움이 클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서로 다른 법적 신분, 자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비교하여 더 나은 수준의 지원 및 상향 평준화를 요구하게 되면 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이 소홀하게 될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감당할 수 준을 넘게 될 것이기에 우려를 표한다.

[분야1. 자격체제]

1) 통합체제 개편: 0-2세, 3-5세 자격구분모델지지

○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는데 동의하나, 전공특성 반영한 자격구분이 필요하다.
0-5세 자격통합모델과 0-2, 3-5세 자격구분 모델 중 회원교의 의견은 **자격구분모델**이었으며, 자격통합모델을 선택하더라도 **세부전공**을 두어 0-2세, 3-5세 전담으로 나누어야 한다.

〈자격구분 혹은 세부전공구분 지지 이유〉

① 교사 전문성 차원: 유치원(또는 영유아) 교사 역시 동등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는데(예: 영아, 유아 정교사 각각 취득) 동의하나 전공특성을 반영한 자격구분이 필요하고 이는 교사 전문성과 직결된다.
0-2세, 3-5세의 학제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며 오히려 0-5세를 하나의 자격으로 묶는다면 그 깊이와 양이 매우 방대하며 오히려 교사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자격구분모델의 단점으로 제시된 '보육교사가 영아교육만을 담당하게 되는 점에 대한 우려'의 경우, 영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 보육 전문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리고 유아 정교사를 원하는 보육교사 또는 영아 정교사를 원하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호 연령대에 맞는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면 된다.

③ 영유아발달적 차이: 영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영유아의 삶의 관점에서 교육과 돌봄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0-5세 통합자격 부여가 적절하나 영유아의 발달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영아와 유아의 고유한 발달특성이 있고 교사역할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부전공 나누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현직교사 자격전환: 교직이수 필수, 시기상조

자격 전환이라는 용어보다는 **자격 취득**으로 봐야 한다.

현직교사 자격취득에서 보육교사는 현재도 교원화 할 수 있는 취득과정이 있다(교대원 또는 방통대, 유아교육과 편입 등). 현직교사들을 과목 이수 등으로 전환하려 한다면 개인적 노력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기존교사들에 비해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자격구분모델, 자격통합모델에 상관없이 현 자격에서 전환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전환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함.

○ 보육교사는 **교직과목 및 교육과정** 과목 필수 수강.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2급, 혹은 보육교사 3급을 취득한 경우 좀 더 장기간 교육 받을 필요.

예)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 2가지를 소지한 교사: 교육부 승인을 통해 통합교사 자격 전환

* 보육교사 자격소지 교사: 교육부에서 승인한 기관에서 현행 교직과목 이수 후 통합자격 부여
* 유치원교사 자격소지 교사: 교육부에서 승인한 기관에서 영아관련 교과 수강, 실습 후 통합자격 부여

○ 현직교사의 통합자격 전환 반대

○ 통합하더라도 유치원 현직 교사 기존자격 유지하며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격취득 기회 제공(한시적)

○ 4년제 이상 교사에게 2급 정교사 부여할 경우 공립교사 급여수준부여해야 하며 보조교사 급여수준 책정 필요가 있다.

○ 보육교사의 사학연금납부에 대한 고려

현재 보육교사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후 학교 교사로 전환될 시 사학연금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혹은 사학연금과 합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더불어 사학연금으로 전환되면 교사는 개인부담금(급여의 9%)이 발생하며, (기존의 보육교사, 기존의 어린

이집이었던) 학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행재정적 고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시기상조

아직 교사의 자격전환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성급하다고 본다. 현직교사 자격전환은 양성, 자격체제에 대한 기틀이 잡힌 후 논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한다. 현재 (교육부에 의해 전달받은 쟁점)자료에 나와 있는 '전환공통사항'에는 1급을 우선 통합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의아하다. 단순히 교사의 급수만으로 이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보육교사와 유치원정교사와의 업무와 역할이 현장에서는 매우 차이가 나며, 근무환경이 다르고, (서로 다른) 교사양성과정에서 갖게 되는 교사의 가치관, 돌봄 혹은 가르침에 대한 철학과 접근도 모두 다른데 단순히 보육교사1급, 유치원교사1급을 급수로만 따져, 동질로 보고 1급 교사를 통합교사로 전환해주겠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양성, 자격과정에서의 공통된 합의, 논의가 전제된 후에야 전환기준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본다.

○ 교사 1급을 대상으로 통합을 한다면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자격 소지자 수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며 유치원 교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 현직교사 자격전환에 드는 비용은 자비 부담 원칙으로 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이 자비로 양성되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자격 전환 과정을 국가가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3) 보육교사3급 폐지, 혹은 자격제한 (보조교사 등)

○ 교육부 홍보자료에는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을 획일적·일률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 질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정책'으로 나와있으므로 이에 따라 교사자격을 상향조정할 필요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3급은 폐지 혹은 보조교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4) 법령개정이 필수적

○ 자격구분모델의 단점으로 제시된 '자격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의 경우,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원자격 뿐 아니라 양성체제, 설립 및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령 개정이 필수적임.

[분야 2 양성 체제 개편]

□ 통합교육과정 모형 개발 이전에 논의할 수 없음

교육과정과 모형 개편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 전에는 교사 자격 및 양성 체제에 대해 논의

하기 어렵다. 교육과정과 모형 개편 방안에 교사가 하루 일과 중 몇 시간을 담당하는지, 해당 시간에 교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내용이 제시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 체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러한 교육과정이 전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다.

1) 4년 학과제

○ 학과제 개편에 전부 동의하였으며, 4년제 대면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연령별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 교육 체제 보강을 위해 교사교육 시스템의 이원화가 요구된다 (3년제는 점진적으로 개편)

2) 통합학과에 대한 의견: 유아교육과 중심, 통합학과 승인은 “교원양성평가 기준 적용”할 것. 급박한 통합교원양성학과로의 승인은 타당하지 않다.

○ 통합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점은 유치원 교사 자격 기준이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역량 개발이 가능한 교사양성과정이 되도록 제도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 유아교육과를 중심으로 유치원 교사 양성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함

○ 보육교사 양성 학과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마련하여 이를 통한 통합자격 부여가능(신중)

○ 보육학과, 아동학과 및 관련학과는 유아교육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양성기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 자격구분 시 각 전공 학과에서 유지 가능함, 유치원교사: 유아교육학과, 보육교사-0-2세 아동학과, 보육학과, 사회복지등)

○ 통합학과 동의하지 않음. 유아교육과 중심으로 교원양성해야 함

○ **교사양성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
‘0-5세 유아학교 교육체제 수립’이라는 대전제의 실행을 위해 유사학과(보육학과, 아동학과 등)에서도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지위를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면, 일정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아교육학과에 부합하는 조건(교육과정 전면 개편, 입학정원 조정, 교수자격 요건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유아교육학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통합의 달성만을 중심에 두고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을 확대하면,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과통합 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아야 하고, 양성기관평가 항목(교육과정, 현장실무, 비교과, 실습체제, 적인성)대로 보육학과의 통합 기준으로 하고 **반드시 양성규모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통합학과 승인 여부 결정하는게 필요하다.
자격기준 갖춘 것 확인후 양성기관 자격 줄 것.

○ **통합학과 설립시 반드시 “교원양성평가 및 역량진단 기준” 에 맞추어야 승인해야 함**

유아교육과는 98년 이후 지난 25년여의 기간 동안 교직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해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이 지속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양성해내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양적, 질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 자격을 갖춘 교사를 배출해왔다. 유아교육과의 경우 교원을 양성해내는 주축 기관으로서 '교원양성평가 및 역량진단'을 1~5주기('98.~'21.)까지 마친 상태이며, 그간의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해왔다. 현재 6주기 교원양성평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감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학과가 고려되면, 학과에서 배출하는 통합교사 인원이 과잉될 것이다.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과승인여부, 정원조정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교원양성평가로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보장받은 기관의 유아교육과 감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교대, 사범대 기준의 강도높은 평가로 유아교육과는 감축되고 유사학과를 모두 통합하여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통합교원 양성학과 승인 시에는 교원양성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교직이수 필수

○ 보육학과, 아동학 관련 학과 등의 경우 교직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사양성역할이행에 있어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급박한 통합교원양성학과의 승인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교직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 지식과 소양으로 교사가 된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므로 교직 이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사이버,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교육원의 영유아교사 양성기능 축소/폐지

○ 영아의 발달적 필요를 고려하여 영아교사를 보조할 수 있는 전담사 배출을 위한 교사 양성과정과는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으로의 전환 가능하다.

○ 학점이수를 통해 개방제 양성과정과 비대면 학과는 앞으로의 교사 질 문제와 인구변동 추이를 볼 때 폐지되어야 한다.

[분야 3. 원장자격 통합]

○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을 통일한다면 어린이집에도 '원감 또는 수석교사'와 같은 중간관리자 직급을 신설되어야 함 (1개교 의견)

회원교들은 전혀 이 분야를 접해보지 못하였기에 구체적 의견을 낼 수 없었다. 원장자격에 대한

통합은 교육부를 통해 전달받은 그 외 쟁점들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의 자격 통합방안' 이라는 한 줄뿐이었으며, 그 외 정보는 전무하였다(이러한 이슈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양성기관의 당사자들은 원장자격의 통합의 의견을 내야 하는지, 어떠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지, 더 본질적으로는 이 점이 현재 논의해야 하는 사항인지 의문이다.

[추가의견]

위와 같은 이유로, 회원교들은 공통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몇몇 응답을 직접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의견을 수렴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형식으로도 의견 수렴을 여쭈었으나 이슈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평소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신 교수님이 아니시면 관련 의견을 내시기에 막막하실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A대 학과장)
>
> '정보 공유가 안되서 추진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정보 공유해달라. 진행사항을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괜히 추측하고 반대할 수 있다' (B대, C대 학과장)
>
> '이미 안이 만들어져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의견이 실제 반영되기는 하는가' (D대 학과장)

종합

종합하자면,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는 자격체제에 대해서는 영아, 유아의 각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사에게 자격을 주는 분리 혹은 통합자격 내 세부전공 모델을, 점진적으로 4년제 학과제로 일원화하며,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발급 폐지를 주장한다. 특히 통합학과 승인시 교원양성평가 및 역량진단 기준에 따라야 하며, 교사전환에 있어서 교직과목의 이수가 필수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를 통해 들어온 의견을 분석하면서, 본 교수협의회의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교사양성체제, 교사자격체제, 현직교사자격변환 등에 관한 이슈는 유보통합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주객이 전도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어떻게 하면 영유아에게 좋은 교육과 돌봄, 양질의 가르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다. 마치, 이미 통합은 결정되어 있고, 그 안에 이 복잡다단한 이슈들에 방점을 찍으라고 강요받는 듯한 상황이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에도 교육목표가 먼저 설정된 후, 내용선정, 교수방법, 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순환적이며 때로 상호작용하지만 교수방법이 교육목표나 교육내용 선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체계,

양성체계방법, 현직교사의 자격전환방법을 구축하는 것은 어떠한 교사가 필요한지, 교사가 어떠한 교육내용을 실현해야 하며, 어떠한 영유아를 키워낼 것인지, 즉 '모두에게 평등한 양질의 교육·돌봄'의 제공 이라는 통합의 본질에 선행될 수 없다. 결국 교사와 관련한 이슈만을 다룬다면, 원래 가야 할 곳을 잃게 될 것이다.

영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일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의 유아를 교육하는 일과 전문적 역량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 존재하며 오히려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 우수교사를 양성하여 질 좋은 영유아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질이 어떠해야 하는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오로지 형식적 요건에만 치우쳐 물리적 통합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보통합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양질의 교육·돌봄이 무엇인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수한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즉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고(교육과정), 이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개발한 후(모델구축), 그러한 역량을 갖춘 교사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며(교사자격, 전문성), 그러한 교사가 되려면 어떠한 능력이 필요(교사양성과정)한지, 그러한 교사를 키워내려면 고등교육기관에서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교수진의 자격, 역량, 전문성)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가운데 토막만 떼어내어, 교사자격, 교사역량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마치 코끼리 다리만 만지게 하고는 코끼리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보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코끼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당사자로서 보통합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유보통합과 관련한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연계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에 관한 통합의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개념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통합만을 서두르는지, 왜 이렇게 모든 이슈를 몇 년안에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해결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교사자격양성체제개편 시안발표가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남은 5 개월만에 빨리 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만의 하나, 지금 당장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면 그 이유를 교사양성기관의 전문가, 현장의 교사, 부모가 모두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여러 혼란스럽고 막막하며 헷갈리는 이러한 사안들 앞에서는 유보통합의 본질을, 본래의 목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많은 이해관계들이 정리될 것이다. 통합관리체계, 재원, 회계, 교육가정,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기관통합 등 여러 측면의 격차가 줄어들고, 상황이 갖추어졌을 때 점진적 통합이 가능한데 물리적으로 통합해놓고 그 안의 상황을 맞추어가려면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만족스러운 통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교사처우개선 역시 교사가 어떠한 역량,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지부터 해놓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18일 이루어진 유보통합 릴레이토론회 1차,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의 발제자인 박창현 박사의 말처럼 이질적 속성을 단기간 결과중심으로 물리적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정책목표이다. 그럼에도 현재 유보통합은 속성이 다른 여러 기관, 행재정, 교사자격 및 처

우 등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한 속도로 접근하고 있어 본 교수협의회는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바이다. 유보통합 당사자들 (현장 교원, 교원을 길러내는 교수,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만이라도 정보공유와 공개, 합의과정을 통해 왜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위한 영유아 교육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교사자격, 양성과정에 대한 통합안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제 2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 방안

발표자

- 김대욱 교수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신나리 교수 | 한국보육지원학회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교사의 처우개선 방안

김대욱 교수 ㅣ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Ⅰ. 들어가며: 처우개선에 앞서 유보통합 성격 규정

1. 영유아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영유아교사, 영유아학교의 성격 확립이 필요

-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 교사 및 영유아교육기관의 성격을 결정하고 이에 맞춰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재원마련을 위해 통합 영유아교육기관이 학교체제인 영유아학교로 정립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2. 일원화된 급여체계 이전에 기존 교원의 영유아교사로 자격전환에 대한 고민 필요

- 교육과정 일원화로 교사자격이 0~5세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임.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통합 연구용역 진행
- 이에 따라, 2025 개정 누리과정은 0~5세 공통 수준 교육과정이 될 것으로 보임.
- 양성체제가 일원화됨에 따라 급여체계도 일원화될 필요가 있음.
- 기존 교원을 영유아교사로 전환하는 자격연수가 필요함.
- 현재, 유치원 정교사를 취득하지 않은 보육교사의 통합 교사 자격전환에 대해 대학원에서 자격취득, 관련 학과 편입 후 자격취득과 같이 자격이수연한으로 2년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1년간 30학점 정도의 자격을 이수해야 하는 방안이 있음. 보육계 중 일부는 보육교사의 경력에 따른 연수기간을 차별화하되 1년 이하의 자격이수 방안을 생각하고 있음. 이에 일원화된 자격전환연수에 대한 절충점으로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1년의 자격연수가 시행되는 방안을 제안함. 이때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을 일부 섞은 블렌디드러닝, 플립러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활용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사의 자격연수 통한 영유아교사 자격 취득 이후 표준급여체계 지급

II. 표준급여 체계 마련: 영유아교사 급여체계 표준화 및 처우개선

1. 급여체계 현실화

- 4년제 유아교육과 졸업시 유치원교사 8호봉(2,099,100), 보육교사 자격 취득시 1호봉(2,099,100)로 처음 받게 되는 호봉은 비슷하나 갈수록 차이가 남.
  10년차 교사의 경우 유치원교사는 17호봉(2,856,300), 보육교사는 10호봉(2,405,000)으로 격차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유치원교사 호봉표와 보육교사 호봉표를 일원화. 유보통합 이후 기존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영유아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로 명칭 변경하여 지급함.
- 국공립유치원 그대로, 사립유치원 수당 추가 지급(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서 보다 강화: 담임수당 상향화/ 법인화하면 호봉 지원 가능, 현재 사인의 형태에서는 담임수당 지급 상향화로 처우개선), 어린이집은 학교체제 설립유형인 국립, 공립, 사립에 맞춰 현행 7개 설립유형을 3가지로 간소화하고 영유아교사 표준급여 체계 및 수당 지급
  (어린이집을 모두 사립영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한다해도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사립공영형어린이집, 사립직장영유아학교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임. 고민해봐야 함.)
- 보수지원방식으로 바우처 방식 보다 현재 선택하고 있는 기관 직접 지원 방식을 채택할 것. 다만,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
- 장기적으로, 영유아교사 호봉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교사 급여수준 모니터링 체계 마련(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확인가능하게 함)
  - 유보통합 이후 통합교사의 급여수준은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격차와 벌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지원
- 표준급여 체계에 따른 예산 추계 및 확보 방안을 세우기 이전에 통합 영유아교육기관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임. 재정확보를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 영유아교육기관을 학제에 편성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학제로 편입시켜 영유아학교를 명확히 하면 재정확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임.

III. 근무여건 개선

1. 교원에 대한 지원

- 재정적 지정, 정서적 지원, 근무시간,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
- 정서적 지원으로 교원 연수나 목적성 경비 지급 고려

※ 송파구 사립유치원 환경개선지원금 중 교원교육환경역량강화 월 10만원, 교원공동체의식 회복 월 5만원 등.

- 교육부에서 추가 교사 배치, 시도교육청에서 추가 인력 배치해야 함.
- 교육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교사 자격을 영유아교원으로 일원화하여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혜택 부여.

2. 근무환경 개선

- 교사용 편의공간 부족, 점진적 개선 추진(교무실, 교사용 휴게실, 성인용 남/녀 화장실 등)
- 향후 신설되는 영유아학교 시설 환경 기준 강화
-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이전에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영유아교사가 개선된 근무환경을 활용할 수 있음.

3.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완화

- 유치원은 학급편성 기준을 시·도 교육감이 정하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하향 조정을 요구함.
- 2023년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중 유아사교육대책으로 교사 대 영유아수 감축이 처음으로 제시됨.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나 교육부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완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영유아들의 발달특성상 안전 및 경계선상 장애영유아 증가를 감안하여 1학급 2교사제(예: 1담임 1부담임) 체제가 필요함.
-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하향에 반대하고 있으나, 영유아교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를 상향 지원하고, 다른 지원형태를 고민하여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사립유치원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되, 보조교사나 부담임을 배치하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면서 현원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모색. 현원은 유지하는 선에서 학급수 증설 고려.
- 다문화 지원 인력도 필요함.
- 만3세 인원수를 하향 조정하여 담임교사를 대폭 증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만4, 5세도 증원해야 함.
- 보건교사, 상담교사 증원.
- 장애영유아 교사 영유아비율은 서울과 제주의 경우 1:2
- 보조교사가 1명씩 배치되고 있는 상황
- 장애전문어린이집에는 다양한 많은 인력이 요구됨.
- 보조교사 배치할 수 있도록 함.

〈표 1〉 어린이집/유치원 연령별 반편성 기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어린이집	3명	5명	7명	15명	20명	20명
유치원	-	-	-	14~20명	18~24명	20~28명
통합 기준	2(3)	5	7	12	20	20

* 출처: '22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23년 교육청별 기준(유치원) 취합, 통합 기준 새로 제시

- 현재 부산의 경우 6개월 미만 0세반은 영아 2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하고 있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행 기준보다 더 하향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4. 근무시간 개선

- 2022년 유아교육실태조사와 2021년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유치원 교사는 일 평균 9시간 18분(교육과정 운영 4시간 34분, 방과후 2시간 2분, 교육준비 1시간 6분, 기타 업무시간 1시간 36분)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일 평균 9시간 43분(보육시간 7시간 50분, 보육준비 및 기타 1시간 2분, 점심시간 10분, 휴게시간 42분)으로 나타나 장시간 근무하고 업무를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점심시간을 교육시간(수업시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어린이집 교사의 기본보육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교재연구, 연수 기회 확대(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 담임교사와 방과후과정교사(연장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정비
- 근무시간을 개선하고 업무를 경감시켜 영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원의 보조 인력 배치가 필요함.

5. 교원 보조인력 배치

- 교사 복무시 교육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체교사 지원, 과중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보조원 배치 지원.
- 시도교육청의 보결교사 인력 확충(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제도 활용사례 참고)

예시: 〈대체교사 지원 강화(안)〉

□ **목표 : 보육교사(담임) 1명 기준 연간 15일(120시간) 지원** (※ 보수교육, 연가, 긴급 사유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해소)

- 보조교사를 통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완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동일하게 적용.

예시: 〈보조교사 확대 방안 (안)〉

□ **목표: 유치원 보조교사 신설 배치,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배치 (2학급당 1명)**

○ 규모: (유) 0명→13,573명, (어) 0~2세 28,024→56,044명/ 3~5세 8,104→ 16,080명

- 어린이집: 담임교사 대 보조교사 비율 현행 4.6:1에서 2:1로 확대
- 유치원: 보조교사 미 배치 상황에서 '25년 3.5:1로 시작하여 2:1로 확대

예시: 〈행정보조원 확대 방안 (안)〉

□ **목표: 3학급 규모의 공립 병설유치원(원감 미배치)에 행정보조원 1명 배치**

※ 병설유치원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지원

○ 대상: 전국 3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 중 원감 미배치 195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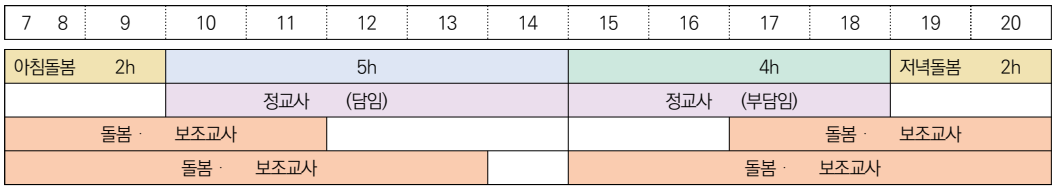
- 청소, 등하교버스탑승 인력 보조 필요.
- 초중고 위센터 기능(상담) 상담복지사가 영유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6. 방과후과정

- 공립유치원 방과후전담사 근무 조정하여 돌봄과 부담임/교무행정 수요 해소
  (예시: 오전돌봄 2시간+부담임/교무행정 5시간 or 부담임/저녁돌봄 2시간+부담임 4시간)
  ※ 경남교육청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TF팀: 공립유치원 방과후전담사 근무를 돌봄 2시간과 교무행정 4시간으로, 나머지 수요를 교육공무직 신규 공개채용으로 진행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교사로 정규교사 중심으로 배치, 부족한 인력은 시기간제 교사 배치
- 통합기관인 영유아학교에서 방과후과정 운영하면서 특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인지위주보다 놀이중심 운영.
  ※ 교육부 사교육경감대책(6.26) 중 공교육에서 사교육 수요 흡수

예시: 〈교원 배치 (안)-보조교사 포함〉

※ 오전 교육과정: 정교사 (정담임), 오후 교육과정: 부교사 (부담임) 배치, 아침돌봄과 저녁 돌봄 교사(보조교사)의 근무시간 조정으로 보조교사의 역할 지원



□ 일과운영 시간(안)

시각	시간	운영형태
7 ~ 9	2h	아침돌봄
9 ~ 14	5h	교육과정 I
14 ~ 18	4h	교육과정 II
18 ~ 20	2h	저녁돌봄

□ 보조 교원배치(안)

	시각	시간	운영형태
1안	7~11, 16~20	각4h	돌봄·보조
2안	7~13, 14~20	각6h	돌봄·보조
※ 1안: 오전 3시간, 오후 2시간 담임 전담			
※ 2안: 오전 1시간 담임 전담			

7. 테마형유치원과 결합하여 교과전담교사 배치

- 기존 영유아교육기관에 교과전담교사 1명을 배치하고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테마형 영유아학교 운영 지원. 현재, 유치원은 완전히 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교과전담교사 배치 불가.
- 현재, 경기, 대전은 놀이지원 전담교사 배치. 하지만, 초등학교에 교과전담을 3명씩 배치하는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학제체제로 통합하여 영유아학교에 교과전담을 배치하면 교원의 업무경감과 기관별 특색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함.
- 공립유치원은 교과전담TO 배치(교육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목적성 경비 혹은 계속성 사업으로 교과전담 배치 후 지원 가능(시도교육청).
- 40년 이상 노후화된 공립유치원을 다시 설립할 때 교과전담 1명 이상과 특색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설계하여 시공.

  ※ 근거: 2023.06.26. 유아사교육경감대책 중 테마형유치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사 및 학교의 자율성 강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중 유-초 연계(국정과제)

  ※ 부산 8학급 이상 단설유치원, 울산 12개 전체 단설유치원에 비담임교사 정규교사 배치

IV. 영유아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1. 직무연수의 효율화

- 영유아교사 연수 표준규정 마련 및 연수내용 재구조화 검토
- 영유아교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검토하고 체계적인 현직 교육 대비

2.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17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활용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다양한 전학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회기별 강사 및 프로그램 구성하여 전학공 지원)
- 전학공은 특색 교육과정 운영 및 실천에 관련한 것도 지원.
- 영유아교사가 다양한 전학공 프로그램 중에 고를 수 있도록 ‘선택형 연수프로그램’ 운영
- 특색 교육과정 운영하는 테마형 영유아학교와 연계한 학습공동체 운영 방법 공유

3. 교사 연수 및 보수교육 훈련기관 지정·관리

- 영유아교사 자격전환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영유아교사 현직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방안 검토. 영유아교사 자격전환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은 17개 시도의 4년제 및 전문대학 영유아교육과 중 신청을 받아 선정.

- 영유아교사 자격전환 연수 종료 이후 교사 연수 및 보수교육 훈련기관 지정 방안 검토
- 향후, 영유아교사 연수 및 보수교육 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V. 나가며

- 통합 교원의 처우개선에 앞서 영유아교사, 영유아학교의 성격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 진행되어야 함. 이에 따라, 재정마련계획도 세워볼 수 있음.
- 유-보 갈등을 빠르게 극복하고, 교원 추가 수급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원 급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함. 이후에 17개 시도 교육감과 초·중등 교육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유보통합의 목표를 처우개선과 격차완화에만 두지 말고, 처우개선과 격차완화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頂上化)와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영유아교육을 지향하고, 질높은 영유아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함.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격차 해소를 위한 쟁점

신나리 교수 | 한국보육지원학회

2023 유보통합 교원 연구 포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격차 해소를 위한 쟁점

한국보육지원학회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신나리

1. 들어가며

교사통합 추진과정에서 논의되는 처우의 격차란?

- 교사의 자격에 따른 차이가 없다면 격차도 없어야 하는가?
- 교사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다면 격차도 없어야 하는가?
- 교사의 직무와 역할에 차이가 없다면 격차도 없어야 하는가?
- 교사의 처우와 복지, 전문성에 따른 차이는 기관 유형(유치원 vs. 어린이집) 간에 더 큰가 또는 설립유형(국공립 vs. 사립/민간) 간에 더 큰가?

김은영, 박창현, 김수정, 김혜진 (2018).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1. 들어가며

- 담당부처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신분 및 신분보장, 자격 및 양성, 직무 및 역할, 임용 및 배치, 처우 및 복지, 연수 및 전문성 제고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에 차이가 있음.

- 교사의 처우나 복지의 자격을 완화하기에 앞서 교사의 학력, 자격, 역할이나 직무, 전문성 등의 격차를 완화해야 함.

교사 자격과 무관한 처우의 일원화

교사 자격에 따른 처우의 차별화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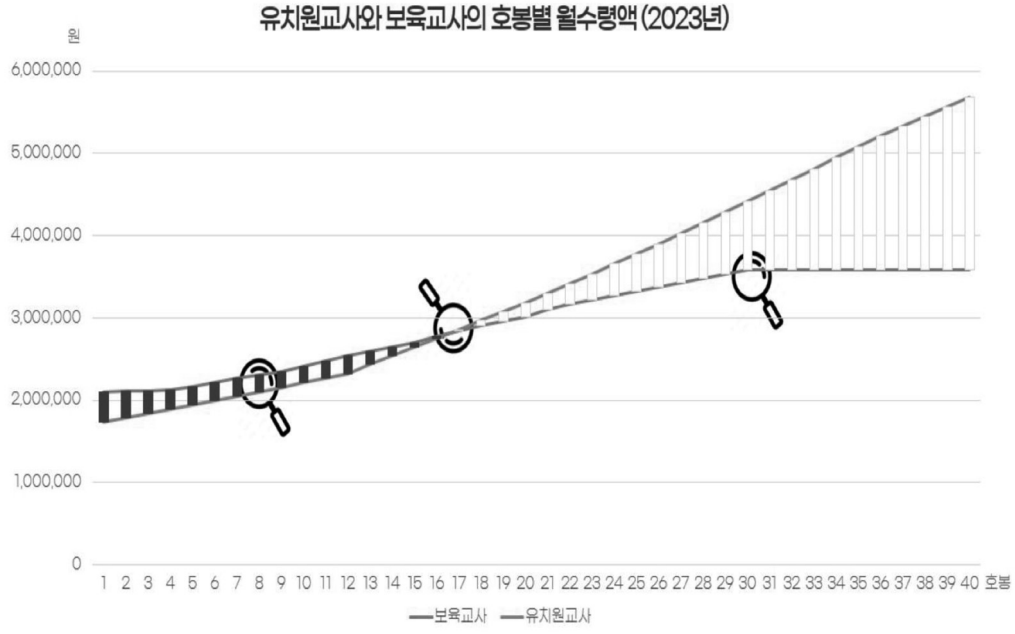
교사통합 추진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 통합 이후의 기관에서 영유아의 경험의 질 제고
- 통합 이후 교사의 처우와 복지를 현재와 동일 이상으로 유지
- 통합 이후 교사의 처우와 복지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와 복지를 목표로 하되, 그 외 섹터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처우와 복지는 균등하도록 조치

2. 급여 및 복지의 격차

기본급

- 보육교사의 경우 초임호봉 산정 시 교육연한 등에 상관없이 1호봉에서 시작함.
- 유치원교사의 경우 국가교원체계의 조건에 따라 전문대 졸업자는 7호봉, 4년제 졸업자는 8호봉, 사범대 졸업자는 9호봉에서 초임 호봉이 시작함.



2. 급여 및 복지의 격차

수당

- 사립유치원교사 _ 담임수당, 지자체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
- 보육교사 _ 담임수당, 지자체 처우개선비, 시간외수당,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연차 유급휴가

연금, 보험 및 퇴직금

- 사립유치원 _ 사학연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 보육교사 _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퇴직금

통합된 기관에서 모든 보육교사의 실질임금 증가분이 있을까?

보육교사의 월 급여 (2021)

단위: 만원(명)

구분	기본급			수당								
				중앙정부·지자체 지원[1]			어린이집 자체			중앙정부·지자체 직접 지급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99.8	28.2	(15,586)	15.0	31.3	(15,586)	7.9	19.3	(15,586)	40.9	27.4	(15,58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23.6	28.2	(3,387)	12.4	23.2	(3,387)	8.9	17.4	(3,387)	43.6	19.3	(3,387)
사회복지법인	226.5	31.3	(862)	16.6	31.2	(862)	6.1	15.6	(862)	39.1	21.7	(862)
법인단체	224.9	33.8	(370)	16.4	31.5	(370)	7.7	13.8	(370)	43.4	20.0	(370)
민간	187.1	15.5	(6,307)	16.3	33.5	(6,307)	5.7	16.9	(6,307)	41.1	29.5	(6,307)
가정	186.5	21.0	(3,804)	14.6	34.9	(3,804)	8.7	23.9	(3,804)	38.7	32.6	(3,804)
직장	220.0	22.9	(856)	14.8	24.5	(856)	18.4	21.3	(856)	40.3	17.3	(856)
F	1,956.8***			7.4***			71.3***			13.1***		
소재지												
대도시	202.9	27.6	(5,904)	12.8	29.0	(5,904)	8.2	21.7	(5,904)	38.1	23.2	(5,904)
중소도시	194.5	25.9	(6,486)	14.4	31.4	(6,486)	7.1	17.7	(6,486)	39.2	27.4	(6,486)
농어촌	204.7	31.8	(3,196)	20.0	34.4	(3,196)	9.1	17.5	(3,196)	49.7	32.1	(3,196)
F	199.7***			56.9***			11.7***			214.8***		
어린이집 규모												
20명 이하	189.8	24.4	(4,939)	14.3	33.3	(4,939)	8.2	22.3	(4,939)	38.3	30.7	(4,939)
21~39명	201.1	28.1	(3,142)	14.4	30.9	(3,142)	7.4	19.3	(3,142)	39.0	24.0	(3,142)
40~79명	205.6	29.1	(4,821)	14.8	28.9	(4,821)	7.7	16.9	(4,821)	41.7	24.0	(4,821)
80명 이상	206.2	28.1	(2,685)	17.0	32.1	(2,685)	8.2	17.1	(2,685)	46.8	29.1	(2,685)
F	344.6***			4.8**			1.4			63.9***		
2018년	168.9	-	(18,394)	38.4	-	-	5.7	-	-	-	-	-
2015년	147.8	-	(26,047)	36.5[1]	-	-	-	-	-	-	-	-

출처: 양미선 외 (2021). 2021년 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3. 법적 지위의 격차

상이한 법적체계

- 유치원교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권리 확보 수준
- 보육교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의무(책임) 수준

〈표 1〉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관련 법률 현황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 교육기본법 • 사립학교법 • 유아교육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규정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 영유아보육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교육문화연구 제21-5호(2015년), pp. 203~227

일반논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김광병*(청운대학교) · 김기화**(서울신학대학교)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유치원교육과 보육이 이분화 되어 발전되어 왔으나 유보통합으로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속될 유보통합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교사 자격관리 체계 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률의 내용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체계는 상이하다. 유치원교사는 교원으로서 교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보육을 제공한다. 둘째, 유치원교사는 전문성 및 예우, 처우 및 지위 향상,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에서 보육교사보다 법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적 의무(책임)분석 결과, 주요 의무(책임)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유치원교사는 교육관련 규정이, 보육교사는 건강, 안전, 인권과 같은 보육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보다 이행해야 할 의무(책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치원교사는 보육교사 보다 권리 확보가 법적 차원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었다. 반면, 수행해야 할 의무(책임)는 보육교사가 더 높았다. 따라서 유치원교사가 보육교사보다 높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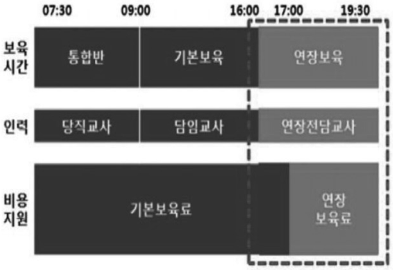
[주제어]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권리, 의무, 법적 지위

4. 근무시간의 격차

● 유치원 운영시간별 인력

출처: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 어린이집 운영시간별 인력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 내용

보육교사의 하루 및 주당 근로시간(2021)

구분	보육 시간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	점심시간	휴게시간	1일 총 근로시간(A)	주당 당직 근로시간(B)	주당 총 근로시간 (A×5+B)	(수)
전체	7시 50분	1시 2분	10분	42분	9시 43분	1시 58분	50시 31분	(3,300)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7시 40분	1시 15분	8분	44분	9시 48분	2시 36분	51시 34분	(657)
사회복지법인	7시 59분	1시 6분	8분	42분	9시 55분	2시 5분	51시 41분	(359)
법인단체등	7시 58분	1시 0분	5분	40분	9시 44분	2시 18분	50시 56분	(217)
민간	7시 59분	54분	9분	38분	9시 40분	1시 38분	49시 57분	(791)
가정	7시 50분	50분	13분	40분	9시 33분	1시 8분	48시 51분	(954)
직장	7시 29분	1시 22분	10분	52분	9시 53분	3시 36분	53시 4분	(322)
F	15.4***	41.0***	11.1***	15.0***	9.8***	15.7***	21.3***	
소재지								
대도시	7시 42분	1시 6분	10분	43분	9시 40분	1시 53분	50시 11분	(1,183)
중소도시	7시 53분	59분	10분	41분	9시 42분	2시 1분	50시 31분	(1,254)
농어촌	7시 57분	59분	10분	41분	9시 47분	2시 2분	50시 58분	(863)
F	17.0***	7.2***	0.0	1.6	3.3*	0.3	2.5	
규모								
20명 이하	7시 51분	53분	12분	40분	9시 36분	1시 24분	49시 22분	(1,338)
21~39명	7시 50분	1시 5분	10분	41분	9시 46분	2시 13분	51시 5분	(689)
40~79명	7시 50분	1시 8분	7분	43분	9시 48분	2시 26분	51시 24분	(885)
80명 이상	7시 46분	1시 11분	7분	44분	9시 48분	2시 26분	51시 25분	(388)
F	0.7	25.1***	15.8***	5.1**	8.2***	10.2***	16.9***	
담당반								
영아반	7시 48분	1시 0분	11분	41분	9시 40분	1시 45분	50시 7분	(2,317)
유아반	7시 56분	1시 4분	7분	41분	9시 49분	2시 33분	51시 37분	(922)
장애아반	7시 2분	1시 22분	12분	49분	9시 26분	1시 53분	49시 1분	(61)
F	22.7***	8.1***	11.1***	2.8	17.8***	8.5***	13.8***	
2018년 조사	7시간 32분	50분	7분	37분	9시간 7분	50분	46시간 26분	(3,400)
2015년 조사	7시간 54분	1시간	30분	18분	9시간 36분	-	48시간 18분	(4,063)

출처: 양미선 외(2021). 2021년 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5. 재교육의 격차

● 1정연수 기본계획의 예

6. 강사료 및 기타 수당 지급 기준(안)

가. 2023하년도 하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사료

구 분	기 준	인원(명)	단가(원)	비 고
강 사 료	1시간	1명~100명	230,000	※분반강사료: 기본강사료 X 0.75 (시간당) ※교재원고료, 문제출제 채점(실험실습 등) 수당은 강사료에 포함됨. ※국내외 저명인사의 특강료는 별도 산정.
		101명 이상	280,000	
교 통 비	관내	-	20,000	
	관외	-	60,000	

* 강사료는 연수 전체수입에 따라서 기준금액 200,000원(100명 이하), 250,000원(101명 이상) 20%내로 변동할 수 있으며, 강사료 지급 단가 변동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 실험·실습 및 재료비: 실험실습 전공별 인원수*30,000원 지원(최소 1,000,000원 지원)

라. 업무추진비: 전공별 300,000원 지원

마. 기타 제 수당

구 분			금 액(원)	단 위	비 고
장학금	보조 근로장학생		10,000	시간 당	과목별 2명
	실험·실습보조 근로 장학생		10,000	시간 당	실험·실습 시수에 따라 필요 인원 배정
운영수당	주임교수		1,000,000	개설과목	
	조교	행정 업무	1,000,000	연수생 1-100명 개설학과	
		수업나눔	200,000	수업나눔진행수당	
	평가 감독수당		100,000	시간 당	전공별 2시간
	각 전공 과제 평가수당		300,000	1명-50명	51명 이상 1인당 5,000원 추가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규정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가. 보수교육 비용 지원

1) 보수교육 비용

o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 직무교육(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 1인당 8만원(40시간 기준)
- 승급교육: 1인당 14만원(80시간 기준)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

2) 보수교육 비용 지원대상

o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직무교육 우선 지원)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교육의 비용은 교육생 부담 원칙

o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하여 교육생이 교육비용의 자비 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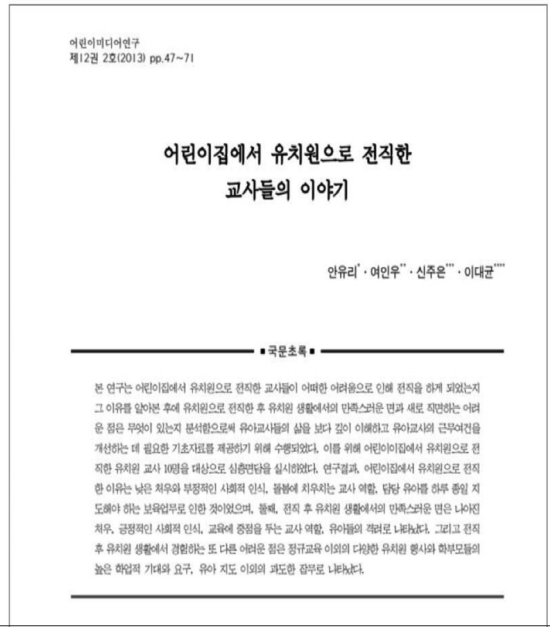
- 교육비용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자는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 납부
-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닌 경우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없음

6. 사회적 인식의 격차

질 좋은 프로그램 vs. 세심한 돌봄

- 나아진 처우
-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사 역할
- 유아들의 격려

- 다양한 유치원 행사
- 학부모들의 높은 학업적 기대와 요구
- 유아 지도 이외의 과도한 잡무



어린이미디어연구
제12권 2호(2013) pp.47~71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직한 교사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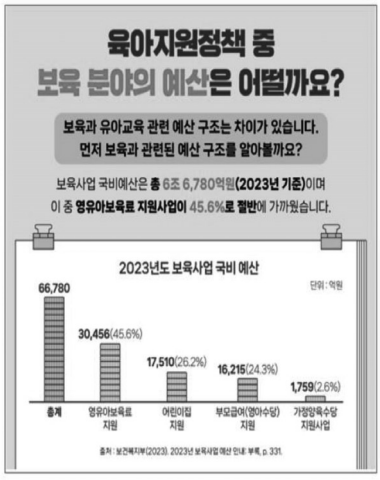
안유리* · 여인우** · 신주은*** · 이대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직한 교사들이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 전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본 후에 유치원으로 전직한 후 유치원 생활에서의 만족스러운 면과 새로 직면하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사들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유아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직한 유치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직한 이유는 낮은 처우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잘못에 치우치는 교사 역할, 담당 유아를 하루 종일 지도해야 하는 보육업무로 인한 것이었으며, 둘째, 전직 후 유치원 생활에서의 만족스러운 면은 나아진 처우,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사 역할, 유아들의 격려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직 후 유치원 생활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정규교육 이외의 다양한 유치원 행사와 학부모들의 높은 학업적 기대와 요구, 유아 지도 이외의 과도한 잡무로 나타났다.

7. 나가며

급여 표준화로 처우에 대한 쟁점이 해소될까?



김동훈, 박원순, 김태우 (2022).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구축·연계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2

학회발표

- 황성원 교수 | 한국보육학회
- 이병래 교수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정효정 교수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임혜성 교수 | 한국유아교육학회
- 조운주 교수 | 한국육아지원학회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에 대한 한국보육학회 입장

황성원 교수 | 한국보육학회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한국보육학회 소속 회원으로서 교사양성체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학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사양성체제의 문제점을 양성학과의 교수로서 언급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사양성과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 개인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한국보육학회 회원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학회' 차원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1. 현 교사양성체제의 문제점

대학의 아동보육학 전공 교수로서 해마다 입시를 치릅니다. 항상 유아교육과와 동시에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상담을 진행하면 지원 학생들 대부분이 유아교육과를 선호합니다. 유아교육과를 선택하는 이유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보육교사 2급 자격도 입학생 전원 100%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에 유사학과, 예를 들어 아동학과, 아동보육학과, 아동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교육상담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복지나 아동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과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입시설명회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을 10%만 취득한다고 말했을 때부터 벌써 유아교육과와 아동 관련 학과 간 사회적 인식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에도 보육학과 입시는 학과 설립 초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약 20년 동안 학생 모집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와 아동 관련 학과의 간극은 입학자원의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입학자원이 줄기도 했지만 저출생 문제, 육아의 부담감, 결혼 기피 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로 인해 0~5세 영유아 관련 분야에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위계화, 서열화하는 분위기가 더욱 자리를 잡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입학 시즌마다 TV 뉴스를 장식하면서 보육이라는 키워드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공 선택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대학교육에도 불구하고 입학 전 진로상담부터 차별하여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보육은 보호(돌봄)와 교육을 포괄하는 용어이고 보육

보다는 교육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아동교육학과로 학과 명칭을 2022년도에 변경하여 모집하였습니다. 몇 개 대학의 관련학과에서는 보육 대신에 교육, 요즘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심리 또는 상담이라는 말을 추가하여 학과 명칭을 많이 변경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과명을 변경한 경우가 4~5개 학과가 됩니다. '상담'도 중요하니 상담을 중심 교육과정으로 재정비하신 학과들의 선택은 그 나름대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생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전문적인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이탈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단지 보육관련학과의 학생 모집의 어려움과 같은 개인적이고 다소 이기적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이유 때문에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보육교사도 유치원교사 만큼이나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육교사 자격증은 유치원 교사 자격증과는 달리 1년 과정의 보육교사 양성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을 만큼 취득경로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취득경로가 생기게 된데 대하여 본인도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그동안 잘못된 정책 시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육교사 배출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체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1년 과정의 보육교사 3급의 배출과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원격교육 방식 등은 반드시 정비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하여 오프라인으로 양성하고 있는 2,3,4년제 대학의 과정은 유아교육과 만큼이나 우수하고 엄격한 교육과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초중고 정식 국가교원체계의 기준에 따라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배출경로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0 ~ 만5세의 수많은 영유아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는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출발선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동질의 교사 양성체계의 정립이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비 교사의 모집 상황이 단지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오프라인 대학에서 배출되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는 모두 동일한 양성체계로 통일하고, 이 양성체계는 정식 국가교원체계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유아교사 양성 기관은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만 분포되어서는 아니 되며, 거점 양성기관의 차원에서 전국적 배치와 분포를 고려하여 교사 수급의 전국 분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출생과 함께 갈수록 공동화되어 가는 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한 영유아 교사의 배출을 확보해야 그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교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만 지방인구의 도시로의 이탈도 막을 수 있으며 지방의 출산률 제고 및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비 교사 양성체제의 정립은 각 지역의 교사 양성기관 졸업 후 해당 지역으로의 취업 연계를 돕고, 전문성 있는 교사의 배출은 교육의 질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 또다시 출산률 제고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 1과제는 물론 교사 양성기관의 정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사의 전문성에 걸맞는 처우개선의 문제도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정 수준의 처우는 더욱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가속화할 것이고, 우수한 교사들은 우리 미래 세대인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또다시 출산률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와 교사의 처우는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변수라고 판단됩니다.

갈수록 줄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이제 영유아 전문 인력이 자격증을 분리하여 일부 10% 취득, 100% 취득으로 인해 위계화, 서열화하지 말고 아동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다함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자격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양성체제의 마련이 유보통합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교사양성체제의 개선안

그렇다면 저희 한국보육학회에서 제안하는 교사양성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교사라는 용어를 없애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통합하여 가칭 영유아교사라는 용어를 제안합니다.
- 새로운 '영유아교사'는 정식 국가교원체계의 정비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는 영유아부터 초중고 모두 동일 차원에서 '4년제' 양성기관에서의 배출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전문대학 내의 전국 간호학과가 모두 4년제로 통일한 것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하물며 '교사'는 더욱 더 공히 4년의 수학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 물론, 현재 2,3,4년제 아동보육 관련 학과가 소위 '영유아교사'를 배출하는 학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영유아교사는 학과제 방식을 통한 대면교육을 기준으로 양성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유아교육과 입학생 전원, 아동 관련 학과 학생 중 10%만 유치원 정교사 2급을 받아온 체제를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어느 학과는 10%만 취득하는 상황은 오히려 보육 자격에 대해 낮은 인식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자격의 문제는 취업 현장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져 왔습니다.
- 유보통합 후의 가칭 '영유아교사' 명칭을 제안함과 동시에 영유아교사 양성학과는 가칭 '영유아교육과' 명칭을 제안합니다.
- 영유아교육과의 교육대상 연령은 영아/ 유아 분절하지 않고 0 ~ 만5세 영유아교사 자격을 통합하여 동일한 양성과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영아교육과정 등으로 심화 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는 교원양성과정 기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질 관리가 유지되었던 만큼 영유아교육과로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교원양성과정 평가지표에 따라 학과평가를 엄격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해 전국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내 동일한 학과 명칭을 유지해 왔지만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교과목을 운영해온 학과 명칭은 정말 다양합니다. 학부 체제 안에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기도 합니다. 학과 체제로 간다는 전체 아래 OO학부 OO전공도 인정해야 할까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전공 과정'이 아닌 학과제로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렇듯 기존에 자격증 과목을 운영해온 학과는 영유아교육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 10년도 정도 보육교사를 배출해온 학과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유치원 정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차이를 교직과목 22학점의 수강 여부로 판단합니다. 전공이수과목은 거의 50학점, 51학점 등으로 유사하지만 유아교육과는 22학점의 교직과목을 필수 이수하므로 총 72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반면 보육교사는 교직과목이 없어 영유아교육과로 통합한다면 당연히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아교육과의 경우 '영아교육과정' 등에 대한 교육내용 이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아울러 향후 교직과정의 내용상의 조정은 다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영유아교육과로 운영하게 된다면,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0~2세 영아를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공과목 내에 교과목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육 아동 관련 학과도 영아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 영유아교사는 영유아교육과에 입학하고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졸업해야 영유아교육기관(명칭의 예, 영유아학교)에 취업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을 새롭게 정한다면 영유아학교라고 부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겠지만 어린이집은 영아학교로 갈 것인지, 유아학교로 갈 것인지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영유아학교를 모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유아학교라고 지칭하지만 영아 전담 또는 유아 전담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렇다면 장애영유아는 누가 지도할 수 있을까요? 현재 보육교사 자격 취득 51학점을 이수하는 자에 한하여 추가 8개 과목을 필수 이수해야 장애영유아 보육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유아특수교사가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 이 자격을 취득한 선생님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육교사가 8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교직을 22학점 이수하면서 추가 장애영유아 보육자격교과목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장애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수교사의 배출을 확대하여 통합된 영유아교육기관(가령, 영유아학교)의 특수학급 등에서만 담당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유치원의 특수학급 등이 크게 부족하여,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수많은 장애 영유아들이 갈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특수교육 전공 교수들이 만든 자격 기준에 따라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정식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담당할 일이며, 통합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영유아를 담당해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교육부에서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 그래서 기존에 보육자격 교과과정을 운영해온 학과들이 영유아교육과 또는 장애영유아 전문 관련학과(예. 영유아특수교육과 등)로 전환할지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은 급하다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과 같은 차선책으로 급조하는 자격증을 만들지 않아야 함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급조된 자격증들은 결국에는 이후 전문성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애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온전히 교육부 특수교육과에서 전담하여 전문가 그룹으로만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3. 현직 보육교사 자격 전환에 대한 제언

현직 어린이집 선생님들 사이에는 유보통합이 되었을 때, 유치원 자격이 없어서 불리하게 된다는 생각이 많이 확산되어 있고, 교육대학원이나 유아교육과에 진학하여 유치원 정교사 2급을 취득해야 한다고 불안해하는 교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적은 것처럼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한 인식 차이는 학점 차이이며, 학점의 차이는 전공보다 교직과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직의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전환교육으로 교직과목의 학점에 해당한 분량이나 시수만큼 자격 전환교육을 실시할 수 있길 제안합니다. 영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할 교사는 전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는 1년 과정의 보육교사 3급,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보육교사,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를 어떻게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유치원 교사와 동등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새로이 정비할 '영유아통합교사'를 배출하기전에 기존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교사의 경우, 전환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교육 이라함은 새로이 정비한 영유아통합교사 자격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별도 교육을 더 받아서 어느 정도 동질의 수준을 맞추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원격 등으로 자격증을 받은 교사의 경우와 대면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받은 경우는 전환교육의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취득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촘촘한 전환교육 단계를 계획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현직교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환교육의 기회를 준다면 영유아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더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만이 참여할 것입니다.

4. 교사양성체제의 자격 강화와 보조교사제 도입

영유아교사로서 취업하려면 당연히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간에 자격을 이수하게 되면 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 뿐 아니라 실무 역량의 향상에도 무리가 따릅니다. 유보통합이 진행되면서 교사양성체제의 정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격을 강화해야 하고, 자격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 영유아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장에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기관에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런 교사의 수급 조절이 불균형이 되어 정작 현장에 필요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대도시와 중소도시 인근의 외곽지역, 농산어촌 등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교사 수급이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교사의 나이도 많다고 합니다. 젊은 교사들이 도시 중심이나 직장어린이집 중심으로 취업하고 싶어 합니다. 자격을 강화하는 교사양성체제의 정비와 맞물려 교사 수급 조절도 잘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원양성기관의 지역별 거점기관의 적절한 배치 및 정원조정, 교원의 분명한 처우개선 등이 선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수급은 교사의 전문성 확보, 양성기관의 전국 배치 및 정원조정 그리고 분명한 처우개선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교사 수급이 어려우니 보조교사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물론 정교사 이외에 보조교사의 지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조교사는 보조일 뿐이며, 교육은 반드시 정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정교사 확보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전문가에 합당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교사 수급의 어려움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에서 지켜야 할 정교사 대 보조교사의 비율도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손쉽게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해야 하며, 무엇이든 원칙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모든 재원 조달을 영유아교육 통합기관이나 학부모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지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각 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먼저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 기관을 중심으로각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기관에 있는 영유아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영유아라는 인식이 중요하며, 이 시기는 아직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무상보육교육 대상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래 교수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및 원장 자격, 양성, 처우 개선 방안

정효정 교수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본 포럼 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제 내지는 공유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컨대 유보통합의 목적과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향 설정과 정책 수립의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Ⅰ. 유·보육의 상호 소통과 합의 도출을 위한 관점 제고

1. 유보통합의 목적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유아교육체제의 통합으로 질적 향상을 꾀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고 균등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이용 편의성과 기관 선택권 보장
- 영유아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적·물적환경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질 관리
- 소관 부처의 일원화, 행·재정적 지원 일원화가 기관의 질적 향상으로 연동되어야 함
- 취학 전 영유아기 교육체제의 전반적인 개혁의 분기점이 되는 통합 기대

2.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와 사회적 함의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근본 취지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 준수
-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정책 구현
-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한 출발선 보장(출발점 평등의 원칙)
- 0세부터 만 5세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포괄하는 통합
- UNESCO(2012)에서도 보육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원적 시각을 극복하고 영유아를 위한 통합 권고

3. 시대적·사회적 '보육'의 필연성

- 보육의 태생적 배경(사회복지)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의 보육체계 구축 변화

- 영유아보육법 제2조 2항에 영유아기 '교육' 명시(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며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것)
- "전문적 돌봄(전문적 보호)=영유아기 교육"의 동일선상과 연속성으로 등치
- 그 논거로, 보육교사자격의 국가자격증화/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제정 및 운영/국가차원의 질 관리(평가제 등)/보육교직원 법적 교육(보수교육)의무화를 비롯해 정부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과 내용에 따른 지속적인 질적 개선에 주력함
- 수요자중심의 국가책임보육으로 다양한 보육유형(취약보육, 특수보육)운영
- 보육지원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사업 확대
- 2022년, 어린이집(30,923개소, 1,091,400원아)/유치원(8562개소, 552,812원아)로 보육의 절대적 필요성 입증
- 그러나, 교육부 문건에는 '교육과 돌봄'으로만 명시, '보육'용어는 전무함
- 새로운 통합기관은 영유아발달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교육·돌봄체제 마련으로만 언급
- '돌봄'이란 용어는 과거의 단순돌봄, 종일돌봄으로 인식,왜곡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제정(1991년) 이래, 우리나라 보육체계 구축 과정을 인지하고 보육기관의 정체성 재인식 및 공유 급선무
- 즉, 어린이집은 "전문적 돌봄을 수행하는 교육기관"/"교육이 수반되는 전문돌봄기관"으로서 '보육'용어 삽입은 당연한 주장임
- 용어의 명문화는 법체제, 행정집행 기준, 정책결정과정 등의 관건이 됨

4. 교육 기능(만이)이 강조된 유보통합 방향

- 통합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 제고 필요
- 교육기능에 초점을 맞춘 유보통합 방향은 영유아기 발달특성을 간과, 영유아기 권익에 충돌하는 결과 초래
- 영유아기 심리·정서·사회발달 보다는 인지발달에 매몰될 수 있음
- 특히, 기관유입의 저연령화 추세로 전문적 돌봄과 교육은 동일선상이며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전 생애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아보육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
- 영유아기 교육의 정체성 혼란과 교육격차 해소 강조로 과다 조기교육 열풍 도래
- 교육복지적 관점의 유보통합 제안, 예컨대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평생학습 지원으로 교육과 보육에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함
-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도 교육부로 통합 추세이나 전문적 돌봄을 중시하는 교육복지적 관점의 통합 운영

- 어린이집의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통합기관의 질적 개선이며 유보통합의 목표로 왜곡되고 있음
- 교육은 유치원/돌봄은 어린이집이라는 고착된 시각으로 보육의 정체성은 폄하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유보통합 목표로 인식하고 있음

5. 보육과 교육의 이분법적 사고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계층화 논란

- 0~만 2세와 만3~5세 기관 분리
- 영아교사와 유아교사의 자격 분리
- 영아는 보육교사(영아전담사)/유아는 기존 교원 신분인 유치원 교사 담당
- 2,3년제 보육교사, 3년제 유아교사 대상 4년 학사학위 취득 과정 의무화
- 교원 신분이 아닌 보육교사는 보조교사 등 비담임제 배치
- 보육교사(원장)가 기준에 부합 시, 유아교사(원장)로 전환 기회 부여
- 유치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 기준에 부합 시,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전환
-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하여 유아학교법 제정 시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준에 부합 시,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 기회 부여
- 유아학교에 부설 0~만2세 돌봄기관 설치 가능
-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유아학교)에 0~만2세 입학 허용, 보육교사가 담당
- 교사 자격 통합이 교사 및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시각

II.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방안

1. 보육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의 현실적인 문제

- 전문가로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업연한, 교육수준, 관련 자격학과전공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건임
- 현행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법적 기준 삭제 시급
- 대체로 보육교사 학력은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은 75.2%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비전문가라는 낙인효과로 작용
- 보육교사교육원(보육교사 3급), 학점은행제 등 개방형 보육교사 양성체계로 인한 자격취득교사의 전문성 논란도 주 현안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자격통합 시, 4년제 교사와 1년제 교사 간의 전문성 격차 논란 여지
- 보육학과제 도입 지연은 보육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정부 실책
- 보육교사 자격과 유아교사 자격과의 연동, 또는 등가 불가론 제기

- 동일 조건에도 유치원교사는 교원, 보육교사는 근로자로 나뉘는 현행법적 불합리로, 교사 개인적 역량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분리되고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양성체계 이원화로 영유아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31조)”를 침해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2.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의 현실적인 대안

- 유아교사 자격이 보육교사 자격의 상위자격(계층화)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양쪽 교사의 갈등과 대립 야기, 근로동기 약화로 영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
- 자격증 유형에 따른 동료교사의 차별 및 불이익, 유보통합 이면에 실질적인 이원화된 기관 분위기는 영유아를 위해서도 경계해야 함

1) 통합교사 자격체제 개편

- 0~만 5세 단일 자격 취득 과정 방안 모색
- 영아발달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교사가 유아발달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숙련된 교사가 될 수 있는지 의문
- 통합교사로의 현직교사의 경과조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완
- 현직 보육교사의 국가자격 취득을 인정하는 보완체계 마련
-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과정 필요, 예컨대 유아교사는 영아보육 등 보육관련 교과목, 보육교사는 교직과목 이수 등의 연수 과정 필요
- 수업연한에 따른 호봉, 수당 등의 차등화는 필요
- 전문성 신장 등 자기계발을 위한 자발적인 수업 연장을 유도
- 신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숙의 과정 필요, 예컨대 교원 신분에 따른 연금 가입 등 국가재정 여건이 관건
- 보육교사 3급 폐지는 필요한 절차임, 다만 농어촌· 도서벽지 등 교사 수급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인력 배치 방안 모색도 시급함

2) 통합교사 양성체제 개편

- 통합 학과명, 교원 기준, 교과목 개설 기준, 교사 소양교과목 이수 기준, 졸업 자격 검정 기준, 실습관리 운영 안 등 필요
- 통합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수업연한은, 4년 과정이 세계적인 추세이나, 기관 특성상 3년제 전문대학 과정도 병합할 필요가 있음
- 학문의 융·복합시대로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통합 초기의 안정적인 양성체제를 위해 가칭 ‘영유아교육학과’ 등의 단일 학과제 도입 필요

-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이버대학 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정규담임 외에 비담임 등으로 인력배치 고려/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수교육 및 법정 의무교육 실시 기관 등으로 검토
- 통합교사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은, 영유아기 전인적발달(신체·언어·심리정서·사회·인지)을 지원하는 전공교과목/0~만5세를 아우르는 복지(보호프로그램) 및 교육 교과목 구성/ 영아기 전문적돌봄과 교육 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 부모,지역사회,사회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영유아교사에게 적합한 교직 교과목(교사인성·자질·소양·직무 윤리·교육철학 등) 구성 필요

참고문헌

교육부. 2022. 제3차(2023-2027)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교육부. 2023. 유보통합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안).

보건복지부. 2022. 제4차(2023-2027)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장영인. 2023. 유보통합 시 영유아기 보육의 필연성과 지속성 확립.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정효정. 2022. 아동권익관점의 유보통합을 위한 논점과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 136:77-101.

정효정. 2022. 한어총민간분과위원회 임원연수 특강자료.

정효정. 2023. 한어총국공립분과위원회 임원연수 특강자료.

정효정. 202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토론회 발제자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3.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교사 자격 양성 체제, 처우 개선방안

임혜성 교수 | 한국유아교육학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관점 및 목적의 변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변화, 저출산 등의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능의 공통점이 확대되고 OECD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권고, OECD 국가의 유아교육 보육 통합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의 요구,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미흡, 통합의 방향과 지향점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등으로 인해 행정부처, 재정, 교사자격 등은 통합 논의만 지속했을 뿐 실질적인 정책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2022년 새정부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유보통합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재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 추진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유보통합 뿐 아니라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었으나,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지속되자, 8월 9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 자료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은 삭제하고 유보통합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었던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풀어가야 한다. 자격체제 개편, 양성체제 개편, 현직교사의 자격 전환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그 이외에 자격 전환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전환 유예기간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의 자격 통합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쟁점들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쟁점 중 교사자격 및 양성 통합의 쟁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유아 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유보통합과 관련된 첫번째 쟁점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기관체제를 학과제 혹은 학점 이수제를 체택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학과제, 보육교사는 학점 이수제로 교사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기관 체제 통합 과정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먼저 학과제 기반 양성체제는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평가'에 의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원을 줄이기 등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사 배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 교원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점 이수제는 교사 배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교사의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교사 자격 부여는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사이버를 통한 교사를 양성은 완전히 제한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학과제를 중심으로 한 대면 위주의 양성체제가 교사의 질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앞으로 유보통합을 할 때 학과 중심제로 양성기관을 통합한다 하더라도 어떤 학과를 포함할 것이며, 학과 명칭은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어떤 양성기관까지 포함할 것인지, 교사 양성과 수급이 어떻게 조절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의 과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최소수업연한에 대한 쟁점이 있다.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2,3년제 양성대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실제적 지표와 상충되는 등 통합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4년제 일반학사 학위 과정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초등 교원에 준하는 자격기준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영유아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인 논리이나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문대 졸 출신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단계적 통합체제 마련 및 현직교육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체계 일원화 방식과 관련된 쟁점이다. 앞으로 현행 유치원 교사자격체계를 일원 할 것인지 아니면 직무와 역할에 따른 다양한 자격체계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 교사자격증 자격체계와 관련하여 자격기준의 일원화의 필요성에는 학계와 현장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명칭이나 종별 구분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은 매우 다양하다. 유보통합 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유치원 교사자격종별 체제와 동일하게 2급-1급-원감-원장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 교원양성체제와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방안이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실제로 유아교육 현장에 담임교사 이외에 다양한 교원의 역할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명칭(예, 담임교사 방과 후 과정 전담사, 에듀커에 교사, 보조교사, 부담임 교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직무나 역할에 따른 다양한 자격체계를 두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한국유아교육학회에서는 영유아학교체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0-5세 영유아가 공교육 체제 안에서 교육과 돌봄 경험을 초중고와의 연속선상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은 첫째, 완전무상교육 기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공교육 체제 강화, 둘째 영유아 교육의 본질인 놀이중심교육 실현, 셋째 모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경험의 연속성 보장, 넷째, 부모의 일과 양육의 병행, 다섯째, 교육과 돌봄을 포괄하는 전문가로서 교사의 삶 보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중 오늘 정책포럼에서는 영유아 교사 자격 양성 체제, 처우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공교육 강화를 통한 영유아 교사의 처우 개선방안과 단계별 교사자격양성체제 정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은 완전무상교육을 기반으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공교육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일률적인 의무교육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0-5세 개별 영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선택권과 개별 영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완전무상교육 기반의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교육의 강점인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공공성을 살리면서 자율적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의무교육이 아니라 완전무상교육 기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영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 보육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며, 재정 일원화 및 완전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특별 회계 및 교사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 학교 교사양성과정은 4년제 학과 중심의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심화 과정의 운영을 제안한다. 0-5세 통합 영유아교사자격으로. 영아와 유아의 전문성을 좀더 살리고자 한다면 심화과정을 통하여 그 안에서 세분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교사양성과정에서 영아 교사와 유아교사를 위한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을 강화하여 영아실습과 유아 실습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교직과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구성하여 영유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통 양성과정을 운영하되, 양성대학의 철학, 교육목적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영유아학교 교사자격 및 양성과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다양한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에 이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 돌봄을 포괄하는 전문가로서 영유아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유보통합과 함께 영유아 교사 전문성의 균질성 확보가 필요하며,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와 근무여건을 보장해야한다. 영유아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의 균질성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력과 경로로 운영되는 이원화 체제를 일원하여 시스템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 교사는 스스로 교육과 돌봄을 포괄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배우며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든 영유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유보통합이 필요하다.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네 가지로 제안한다. 먼저 처우개선비가 아닌 교사 호봉에 따른 인건비지원 필요하다. 유보통합 재정지원에서의 우선은 교원 인건비 직접지원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아를 교육하는 시간은 5시간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학급당 교사 2인 배치를 권장한다. 경기도 공립의 경우 공무직 문제가 심각하며, 세종시의 경우처럼 정교사 2인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여 것도 바람직한 방향 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격향상은 인건비 향상과 연계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영유아교사 자격 및 양성, 처우 개선은 우리나라의 모든 0-5세 영유아가 공교육 체제 안에서 초중고와의 연속선상에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받는 영유아학교 체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포괄하는 전문가 양성과 자격제도기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전문성을 높여가며 행복한 삶을 보장 수 있는 처우가 뒷받침되는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은 완전무상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공교육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과 돌봄을 포괄하는 전문가로서 영유아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유아교육학회(2022).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연구. 경기도. 양서원.

고영미, 서윤희, 임수진, & 박수경(2022).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및 단계별 방안. 유아교육연구, 42(6), 541-570.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및 원장 자격, 양성, 처우 개선 방안

조운주 교수 | 한국육아지원학회

유보통합에서 교사자격과 양성체제의 전제 조건

1. 영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 향상
2. 교사의 질적 수준, 처우 향상
3. 최소한의 혼란

분야1. 자격 체제 개편

□ **유아 연령별 교사자격 구분 모델을 지지함**

○ 0-2세 담당 영아교사 / 3-5세 담당 유아교사

○ 유아교육기관이 일원화된 나라들도 교사 자격 및 양성은 이원화하는 경우 많음

- 유아교육기관의 일원화가 교사자격의 일원화를 의미하지 않음

- **싱가포르**는 유아 연령에 따라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과 자격증을 4단계로 구분**(6세 이하 모든 연령의 영유아 담당(L2)/18개월~4세 이하(L1)/2개월~3세 이하(EY2)/2개월~18개월 이하(EY1). (L1, L2 자격증 소지: 교사/EY1, EY2 자격증 소지-보육사)(신동주 외, 2018).
- **독일**에서는 ECEC(초등교육·유아교육) 교사는 학사학위(ISCED level 6) 요구됨(OECD, 2019). 학문적으로 초점을 맞춘 **유아교육학 학사학위**, 아동 교육에 초점을 맞춘 **직업교육 학사학위로 이원화됨**(OECD, 2019)

○ 자격 구분은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함

- 0-2세는 돌봄, 3-5세는 교육의 비중이 더 크므로 전공 특성을 반영한 자격 체제가 적합함
- 대학의 교사양성과정에서 해당 연령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므로 영유아 연령별 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될 수 있음

○ 교사자격 체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

□ **보육교사 3급자격 폐지를 지지함**

○ 보육교사 단기 양성과정은 어린이집의 양적 확장 시기에 보육교사의 수급을 위해서 일시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였으므로 폐지가 타당함

□ **현직교사의 자격은 가급적 유지**

○ 현직교사의 통합자격 전환은 많은 혼란을 유발

○ 연령별 자격 구분 모델을 실시할 경우, 유아교사와 영아교사 자격을 모두 가진 교사의 경우, 선택권 제공

○ 현직교사 중 자격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특정 기간까지 교육을 통한 자격 취득 기회 제공 (다양한 방법(방송통신대, 심화과정, 대학원 등)으로의 교육 기회 제공)

분야 2. 양성체제 개편

□ **교사 양성기관은 4년제 학과제를 지지함**

○ **학사학위 이상 졸업자들에게 2급 교사 자격증 부여**

- 기존 자격 체제를 유지하므로 현직교사의 자격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교사의 자질 및 역량 향상(초중등교원과 동일 자격부여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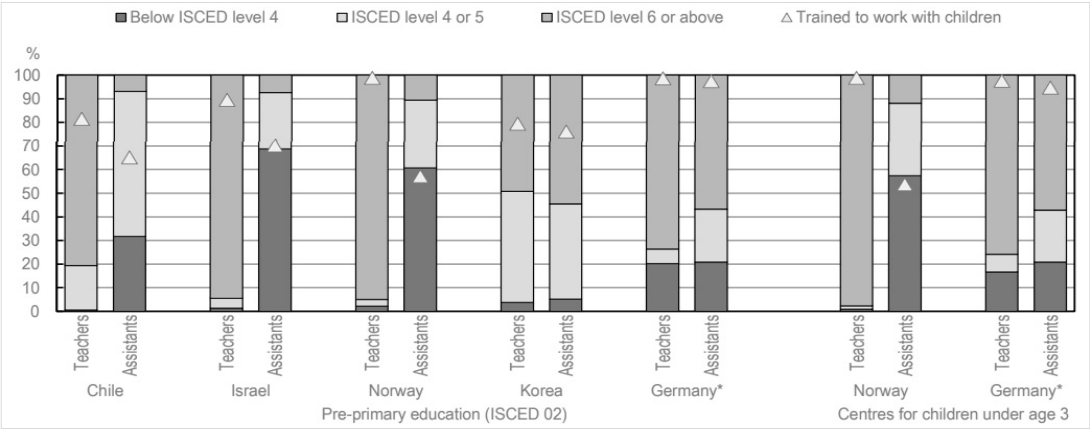
○ **교사 양성대학은 4, 3년제 병행 가능(대학 선택권 부여)**

- 대학에 선택권 부여(2, 3년제 대학은 전공심화로 학사학위 가능함)
- 수학 기간(2, 3, 4년)에 따른 자격의 차별화(정교사, 부교사 등)

○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정교사의 최종학력 수준이 낮음**

- OECD 국가의 정교사는 학사학위 소지자고, 보조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단기양성과정 출신이 많음.
- 우리나라는 정교사와 보조교사의 학력 차이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정교사 학력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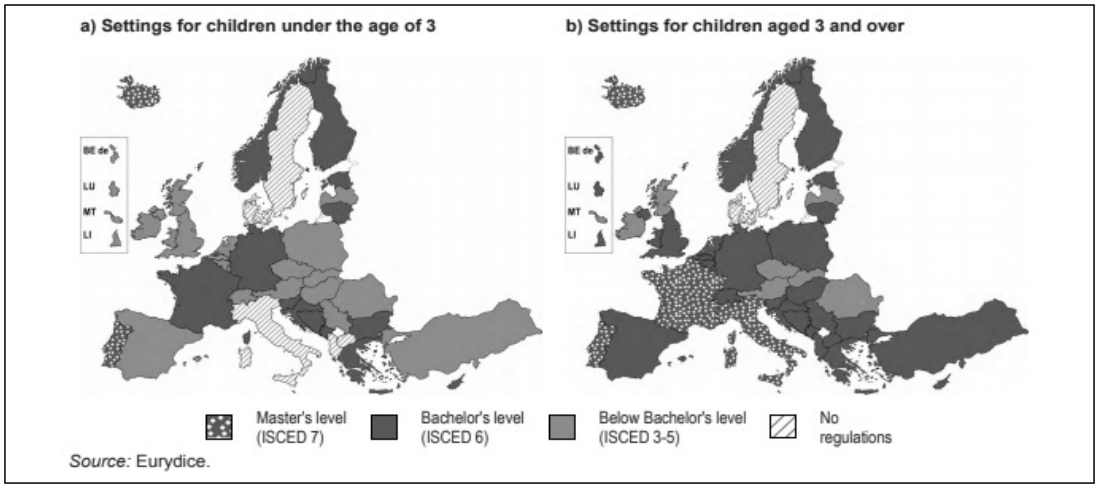
〈그림 1〉 교사 및 보조교사의 교육수준



주: 아이슬란드, 일본, 터키 및 이스라엘의 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문에는 교사와 보조교사 사이의 구분이 사용되지 않음. ISCED level은 학력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교육기호로, level 4는 고졸 이후 직업교육기관 수로, level 5는 전문대 등 초급대학, level 6는 4년제 학사학위를 의미함.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 level4 이하란 직업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은 고졸을 의미함.

출처: OECD(2019).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sults from the starting Strong Survey 2018, TALIS, OECD Publishing, Paris. p. 105

- 유럽에서 3세 이상 유아 담당 주교사 최종학력은 학사학위(ISCED 6수준)가 가장 많음.



출처: European Commission, EACEA, Eurydice (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Eurydice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 72.

- **뉴질랜드**는 유아교사의 최소자격 수준을 **학사학위**로 규정(장혜진, 2020)
- **아이슬란드**는 2009년부터 유치원 교사들에게 **석사 수준**(ISCED level 7)의 교육 요구(OECD, 2019).
- **스웨덴**은 유아교사는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에서 초등교사와 동일한 3년 6개월(문미옥, 2023)

□ 현행 교사양성 체제에 근거한 전공별 교사양성을 지지함

○ 현재 유아교육과(초중등과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실시 등)/보육 관련 학과의 전공 특성 및 교육과정 운영을 크게 수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사양성 체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단, 보육 관련 학과가 영아교사 교원자격 취득을 원한다면, 교육부 교원양성과의 협의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됨(배출 인원, 양성과정운영 등등)

□ 보조교사 자격, 양성의 필요성

○ 수학 기간(2, 3, 4년)에 따른 자격의 차별화로 부교사(보조교사) 제도 마련 가능

분야 3. 원장의 자격 통합

□ 현재 유치원교사 자격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지지함

○ 현 유치원장 자격 기준을 준용하되, 자격이 미비한 원장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한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함

분야 4. 교사 처우개선

□ 영아, 유아교사에게 공립유치원 교사의 급여수준 유지

○ 정교사들에게 공립유치원교사 급여 수준을 제공해야 함

- 출산율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부모의 신뢰 증진을 위해서 좋은 교원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사급여 수준 향상 필요

○ 부교사 제도 시, 그에 대한 급여 수준 책정 필요함

□ 근무시간, 유아: 교사비율은 점진적인 개선 필요

○ 예산 확보를 통해서 현행 근무시간 및 유아 교사 비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참고문헌

문미옥(2023). 해외에서는 어떻게 유아교육·보육이 이뤄질까? 행복한 교육, 488, 28-35. 세종: 교육부.

신동주, 염지숙, 장혜진 (2018). 각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 방안. 국무조정실공고 2017-55호.

장혜진(2020). 뉴질랜드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양성과정과 연수·멘토링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1387-1410.

European Commission, EACEA, Eurydice (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Eurydice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OECD(2019).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sults from the starting Strong Survey 2018, TALIS, OECD Publishing, Paris.

유보통합 교원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보육 전문가 포럼